

메시지 2
한 새사람의 실지적인 존재를 위해
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

성경: 엡 2:15-16, 4:22-24, 골 3:10-11, 롬 12:2

- I. 이 시대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한 새사람의 실지적인 존재를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다.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이다 — 엡 2:15, 4:24, 골 3:10-11.
- II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체험의 면에서, 십자가에서 종결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창조된 새사람을 입기 위해 삼일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— 엡 2:15, 4:22, 24.
- A. 지난날의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— 엡 4:22.
1. 침례를 받았을 때,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.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,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— 롬 6:4상, 6.
 2.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— 엡 4:22, 17.
 - a.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, 특별히 옛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포함한다 — 엡 4:22.
 - b. ‘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’을 벗어 버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하는 방식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— 엡 4:22.
 3. 옛사람은 ‘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 가고 있다’ — 엡 4:22.
 - a. ‘속이는 것’ 앞에 나오는 ‘그’는 강조하는 것이고, ‘그 속이는 것’은 인격화되어 있다.
 - b. ‘그 속이는 것’은 속이는 자, 곧 사탄을 가리키는데, 그 사탄에게서 부패한 옛사람의 욕정이 나온다.
- B. 우리는 ‘새사람,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’ — 엡 4:24.
1. 침례 받음으로 우리는 새사람을 입었다 — 롬 6:4상.
 2. 새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. 새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몸이다 — 엡 2:15-16.
 3.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한 새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입는 것이다 — 엡 4:24.
 - a. 한 새사람인 교회생활을 입는 것은 신성한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의 연합으로 산출된 단체적인 한 실체를 입는 것이다 — 고전 15:45하, 6:17.
 - b. 우리는 한 새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, 우리의 생활은 단체적인 하나님-사람인 한 새사람의 생활이어야 한다 — 엡 4:17-32.
 4. 에베소서 4장 24절의 ‘그 실재’는 인격화되어 하나님을 가리킨다. 실재는 하나님이다. 한 새사람은 바로 이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.
- III.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비결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— 엡 4:23.
- A.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, 이 두 영은 함께 연합되어 생각의 영을 이룬다 — 딤후 4:22, 고전 6:17.

- B.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이 영과 연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 되실 때, 이 연합된 영은 생각의 영이 된다. 바로 이 연합된 영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 — 엡 4:23.
- C.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내적이며 내재적이다.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논리, 철학, 사상, 관념, 심리를 변혁시킨다 — 롬 12:2.
- D.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자 할 때에만,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 — 엡 3:11, 4:23.

IV.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한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— 엡 4:22-24, 골 3:10-11.

- A. 한 새사람이 실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— 롬 12:2, 엡 4:23-24, 골 3:10-11.
- B.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실지로, 날마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한 새사람을 얻으실 길이 없다.
- C. 우리의 생각은 다만 우리의 영적인 행동이나 개인적인 윤리적 행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새사람의 존재를 위해 새로워져야 한다 — 엡 4:24.
- D.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초점은 한 새사람이다 — 엡 4:23-24.
- E. 우리의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사고방식은 일생 동안 형성된 것이지만, 한 새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이 사고방식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— 엡 4:23.
 - 1. 우리의 천연적이고 민족적인 사고방식은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이며, 우리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. 이것은 한 새사람이 실지적으로 존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— 골 3:10-11.
 - 2. 한 새사람이 완전히 출현하기 위해서는, 우리는 반드시 국적과 문화에 따라 형성된 우리의 생각이 철저히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— 롬 12:2, 엡 4:23-24, 골 3:10-11.
- F. 우리는 기도할 때 한 새사람의 실지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기로 갈망해야 하며,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 — 롬 12:2.
- G. 매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.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한 영을 마음으로써,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— 고전 12:13.
 - 1. 우리가 그 영을 마실 때, 그 영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신다. 우리의 혼의 부분들 중에서 그분께서 첫 번째로 적시시는 부분이 곧 우리의 생각이다 — 고전 12:13, 롬 12:2.
 - 2. 그 영을 마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고, 이렇게 새로워질 때 우리는 모두 한 새사람이 될 것이다 — 엡 4:23-24.
 - 3.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될 때 한 새사람이 실지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, 그리스도는 진실로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 — 골 3:10-11.
- H. “오늘날 온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고, 그분을 추구하며,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인해 삶으로써, 반드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한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.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이다.”(위트니스 리 전집, 1977년, 3권, 한 몸, 한 영, 한 새사람, 499쪽)